

[주식전략팀] 2014년 8월 13일 수요일

삼성 Daily

- Daily 주요지표
- 주식시장 전망
 - 우선주 강세현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
- TOP 10
- TOP 10 & 유니버스
- TOP 10 스타일별 분류 및 트레이딩 밴드
- 모멘텀 플레이 유망주
- 글로벌 Best 11 - (신규) P&G
- 글로벌 ETF 5
- 글로벌 Peer 분석
- 수급 빅매치 - 기업은행 · 테스나
- Market Indicators
- 증시 캘린더
- 해외주식 바로 알기



Daily 주요지표

	지표	최근값	전일대비	1일전 (%)	5일전 (%)	52주 고가	52주 저가
주식	종합주가지수	2,041.47	2.10	0.10	(1.20)	2,093.08	1,838.52
	거래량 (백만주)	308.13	22.28	7.80	(11.16)	425.95	168.83
	거래대금 (십억원)	3,694.88	55.55	1.53	(9.69)	6,694.45	2,224.80
	KOSDAQ지수	545.76	(0.54)	(0.10)	(0.36)	573.88	483.32
	거래량 (백만주)	314.11	11.29	3.73	(16.20)	570.17	214.72
	거래대금 (십억원)	2,031.46	(1.26)	(0.06)	(8.22)	2,675.26	969.37
채권	국고채 (10년)	3.06	0.02	0.59	(0.13)	3.76	2.96
	국고채 (3년)	2.52	0.01	0.36	0.04	3.04	2.46
	회사채 (3년 AA-)	2.91	0.01	0.28	(0.17)	3.45	2.88
	CD (91일)	2.62	(0.01)	(0.38)	(1.13)	2.66	2.62
외환시장*	원/달러	1,026.40	(3.90)	(0.38)	(0.18)	1,123.00	1,008.50
	엔/달러	102.27	0.08	(0.08)	0.32	105.47	96.56
	달러/유로	1.34	(0.00)	(0.19)	(0.13)	1.40	1.31
아시아증시	니케이225 (일본)	15,161.31	30.79	0.20	(1.04)	16,320.22	13,188.14
	TOPIX (일본)	1,257.69	5.18	0.41	(0.46)	1,308.08	1,103.94
	가권 (대만)	9,163.12	(9.79)	(0.11)	0.24	9,593.68	7,737.33
	상해종합 (중국)	2,221.60	(3.06)	(0.14)	0.07	2,270.27	1,974.38
	심천종합 (중국)	1,194.94	3.59	0.30	1.89	1,194.94	973.21
	항셍 (홍콩)	24,689.41	43.39	0.18	0.17	24,912.22	21,137.61
	H주 (홍콩)	11,064.35	26.47	0.24	0.50	11,638.27	9,159.76

참고: * 전일 17시 30분 기준

김용구

ygno.1.kim@samsung.com

02 2020 7047

주식시장 전망

우선주 강세현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

흔들림 없는 편안함, 우선주 강세현상 지속

지난 주식시장 전망자료를 통해 살펴봤던 중대형 우선주 포트폴리오는, 12일 현재 29.7%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동기간 3.9% 상승세를 기록했던 KOSPI를 압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중대형 관심 우선주: 현대차2우B, SK이노베이션우, CJ우, 코오롱인더우, 한진칼우,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우선주 5選', 3/5일, 김용구). 이는 작년 하반기 이후 본격화되었던 우선주 강세현상이, 박스권을 넘나드는 시장의 부침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이다.

보통주 대비 우선주 주가 수준을 나타내는 괴리율((보통주 주가 - 우선주 주가)/보통주 주가)은 계속된 우선주 강세현상에 힘입어 34.8% 수준까지 빠르게 하락했다 (그림 1). 보통주 주가의 상승폭보다 우선주의 상승세가 더 컸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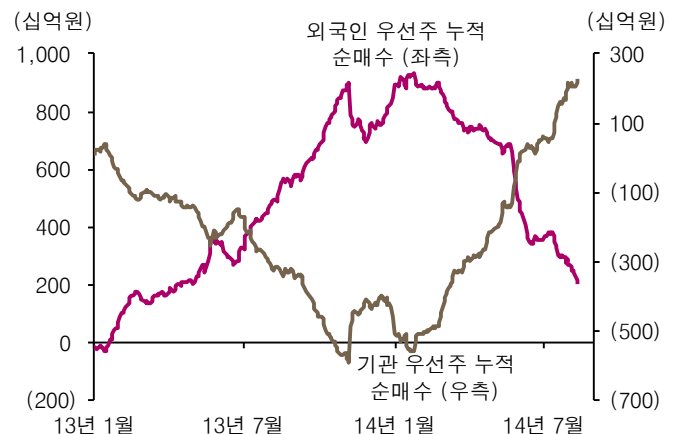
흥미로운 점은 그간 우선주 수급을 주도했던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했음에도 주가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6월 이후 KOSPI에서만 5.5조원의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되며, 전체 시장 내 외국인 보유비중은 완만하게 상승했지만, 우선주 비중은 지속 감소하는 상반된 흐름이 나타났다. 외국인의 빈자리를 대신했던 것은 기관이었고, 수급의 공수교대에 힘입어 우선주 강세현상은 계속될 수 있었다 (그림 2, 3).

그림 1. 보통주 대비 주요 우선주 가격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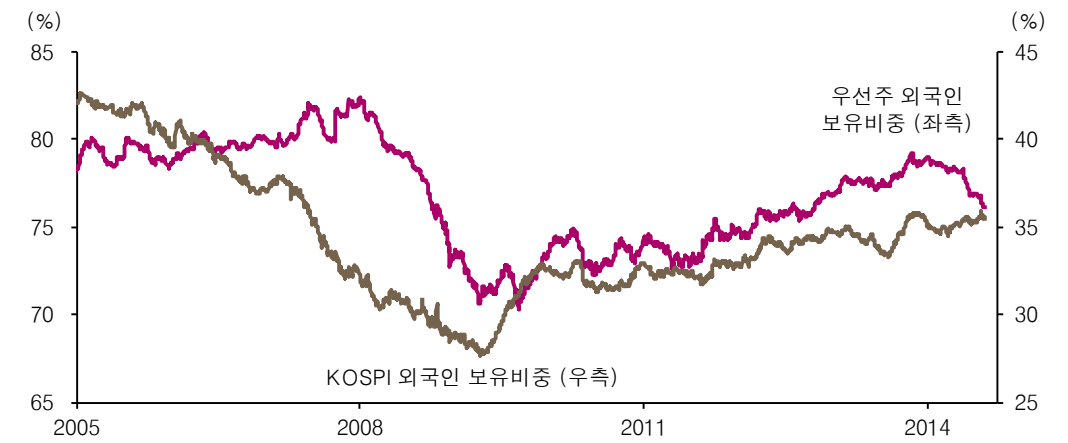
참고: 시가총액 상위 50개 보통주의 해당 우선주
자료: Dataguide

그림 2. 우선주 수급은 외국인에서 기관으로 손바꿈



참고: 시가총액 상위 50개 보통주의 해당 우선주
자료: Dataguide

그림 3. KOSPI 및 주요 우선주 외국인 보유비중 추이



참고: 시가총액 상위 50개 보통주의 해당 우선주
자료: Dataguide

보통주 대비 괴리율의 축소, 핵심 수급원이었던 외국인의 변심, 일부 우선주의 단기과열 등 우선주를 둘러싼 시장의 변화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업 배당 활성화에 방점을 둔 정부정책이 제시되었고, 기준금리 인하 이후 시장 내 판도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주 강세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고, 다시 투자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복기: 우선주 강세를 예상했던 이유

연초 세가지 이유에서 우선주 랠리 가능성을 예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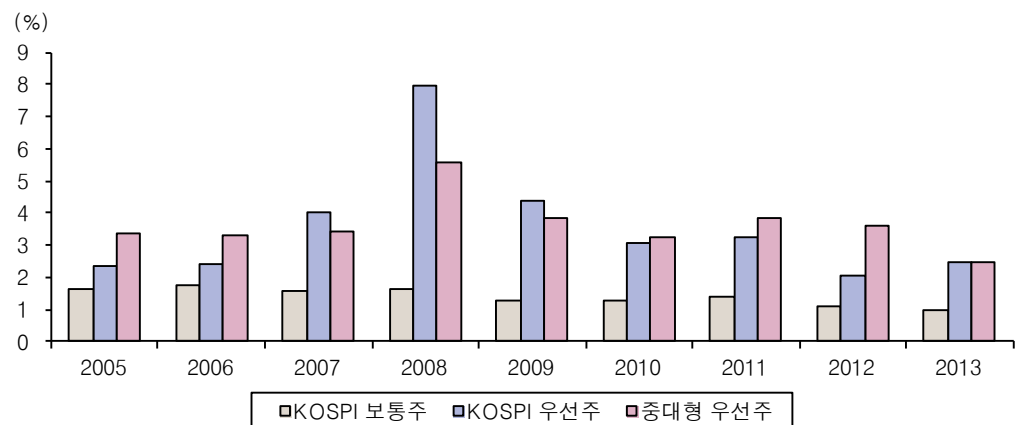
첫째. 경영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가 감소했다. 최근 Long Only 펀드의 전성시대가 마무리되고, Long-Short 펀드가 시장의 새로운 축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Long-Short 운용전략상 마켓 타이밍에 연유한 매매차익이 중요하고, 의결권을 통한 경영참가는 부수적인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 비싼 보통주 보다는 저가의 우선주가 보다 효과적인 투자대안일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한국증시는 의결권의 가치가 무의미한 시장이다. 한국 주요기업 대부분이 오너 일가와 계열사간 상호 지분출자로 중무장한 상황에서, 한계기업이 아니고서는 시장거래를 통해 복잡한 포위망을 뚫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이는 시장 내 M&A와 기업간 합종연횡이 반복되는 선진시장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특히 소액주주의 의결권 가치는 0에 가깝다. 주주총회에서 손 한번 들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경영권은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 할 대상이기 보단 주식매수의 부대비용 성격이 짙다. 우선주가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의미다.

셋째. 주주이익 환원 확대에 대한 시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배당과 자사주매입으로 구성되는 주주이익 환원작업은 기업의 성장성과 반비례의 관계를 갖는다. 투자자의 포커스가 고성장 기간에는 이익 성장성에 집중되지만, 저성장 구간에선 배당과 자사주매입을 통한 안전마진 확보에

열을 올리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경제가 고도 성장기를 마감하고 장기 저성장 성숙경제로 변모해가는 상황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투자 패러다임은 기업의 성장성에 연유한 Capital Gain(자본차익, 매매차익) 추구에서, 기업의 안정성에서 비롯된 Total Return(자본차익+주주이익 환원) 제고로 이동할 것이다. 우선주가 시장 보통주 대비 높은 배당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주 투자는 Total Return 극대화를 위한 효과적인 투자대안으로 도약할 수 있다 (그림 4).

그림 4. 배당 수익률 현황: 중대형 우선주 > 시장 우선주 > 시장 (금융위기 제외 시)



참고: 중대형 우선주는 시가총액 상위 50개 보통주의 해당 우선주

자료: Dataguide

다시 우선주의 추가적 강세를 예상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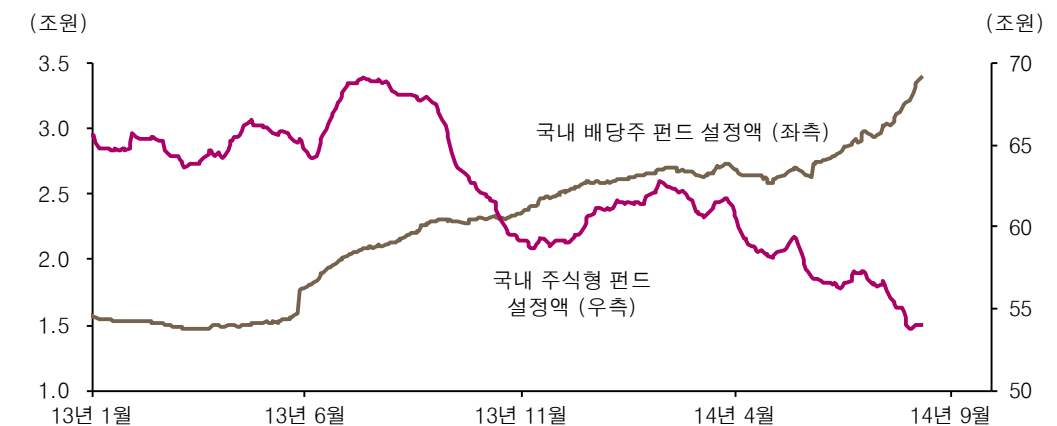
우선주 강세현상이 상당부분 진행되었음에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 역시 세가지 이유에서 비롯된다.

첫째, 기업 배당 활성화에 초점을 둔 정부정책 변화가 가시화되었다. 우리는 최경환 경제팀 경제정책을 해석함에 있어, 개별 법안의 영향력과 의미보다는 '지도에 없는 길을 걸어서라도 한국경제가 직면한 장기 축소균형의 문제를 반드시 극복하겠다'는 강도 높은 정책의지에 주목하고 있다. 요식행위와 다름 없는 한두 번의 정책제시가 아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근본적인 정책처방이 계속될 것임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기업 배당 활성화는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와 증시 배당수익률 개선을 통한 금융시장 정상화의 중요 연결고리다. 정책적 고민이 집중될 수 밖에 없는 이슈인데,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배당소득 증대 세제 도입은 변화의 끝이 아닌, 거대한 변화의 신포탄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업 배당 촉진에 대해 여야 모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기 이슈는 단기과제가 아닌 시장의 중장기 Game Changer가 될 공산이 크다.

정책과 투자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기대는 투자심리 측면에서도 고스란히 묻어난다. 자금이탈이 가속화되는 액티브 주식형펀드와는 달리, 우선주 편입비중이 높은 배당주 펀드는 자금유입이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그림 5). 이는 우선주 시장에 있어, 외국인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수급 축이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향후 이탈했던 외국인이 다시 복귀할 경우, 우선주 강세현상은 보다 빨라지고, 다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 5. 주식형 펀드는 지속 감소, 배당주 펀드는 증가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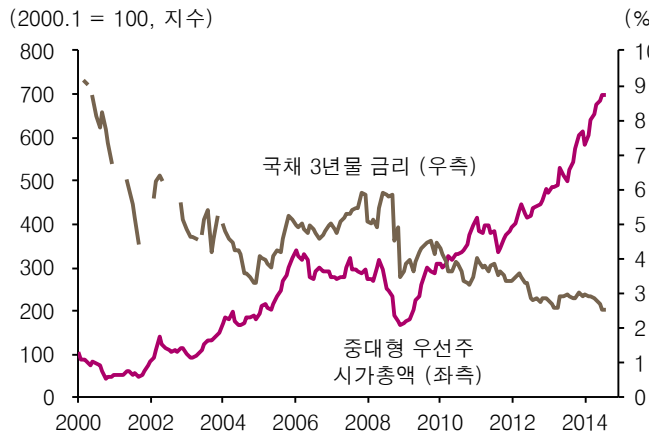
자료: 제로인

둘째, 기준금리 인하는 우선주 추가강세의 촉매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6)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통상 우선주 주가방향은 시중 금리변화와 반대방향으로 움직여 왔다. 금리상승 및 횡보구간에서는 우선주 주가의 담보상태가 이어졌으나, 금리하락기에는 유의미한 주가상승이 전개된 것이다. 본래 우선주의 성격이 보통주에 부여된 의결권이 없는 대신, 보통주에 앞선 배당금 수령권과 잔여재산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채권자적 성격이 강한 중류증권으로 볼 수 있다. 금리하락은 채권가치의 상승요인이라는 사실은 상기 현상의 논리적 근거가 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고배당 주식에 한해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을 기존 14%에서 9%로 인하했고, 연간 배당소득이 2천 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해당 고액자산가에게 6~38% 종합소득세 세율이 아닌 25% 분리과세 선택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2012년 현재 5.1만 명(금액기준 3.9조원)에 이르는 이자소득 2천만원 초과 종합소득자와 4.8만 명(금액기준 7.5조원)의 배당소득자의 자산배분 변화를 촉발하는 변인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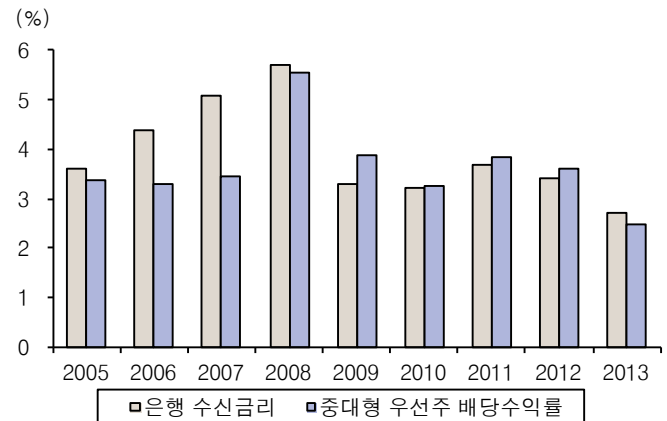
또한, 장기 저성장·저금리 기조의 고착화와 8월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고려해본다면, 은행금리 대비 우선주 배당수익률의 역전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림 7). 고배당 우선주 투자를 통해 은행보다 높은 수익률을 향유하며, 과세부담까지 덜 수 있는 것이다. 금리변화 역시 우선주 추가 강세를 지지하는 또 다른 긍정요인인 것이다.

그림 6. 금리하락은 우선주 강세의 원동력



참고: 중대형 우선주는 시가총액 상위 50개 보통주의 해당 우선주
자료: Dataguide

그림 7. 은행금리 대비 우선주 배당수익률의 역전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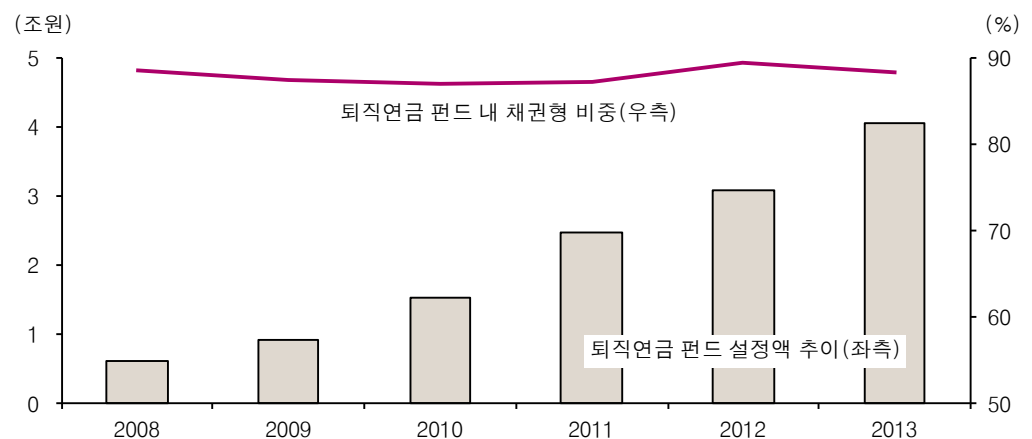


참고: 중대형 우선주는 시가총액 상위 50개 보통주의 해당 우선주
자료: 한국은행, Dataguide

셋째, 급속한 인구 고령화 역시 우선주의 지속 상승 가능성을 지지한다. 전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는 한국경제의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장기 인구구조 변화 가능성은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노후 금융자산에 대한 관심 확대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폭발적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는 노후 금융상품의 자산배분 양태다. (그림 8)의 퇴직연금 펀드의 자산배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이 채권자산 일변도의 자산구성을 유지하고 있다. 장기 저성장·저금리 트렌드로의 전환을 상기해본다면, 채권을 대체·보완할 수 있는 다른 투자대안이 필요하다. 고배당주와 함께 우선주 역시 고정 현금흐름(Cash Flow) 창출이 기대되는 Income 자산이라는 점은, 우선주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기대케 하는 또 다른 이유로 볼 수 있다.

그림 8. 노후 금융자산 내 채권 대체 자산 필요성 확대



자료: 제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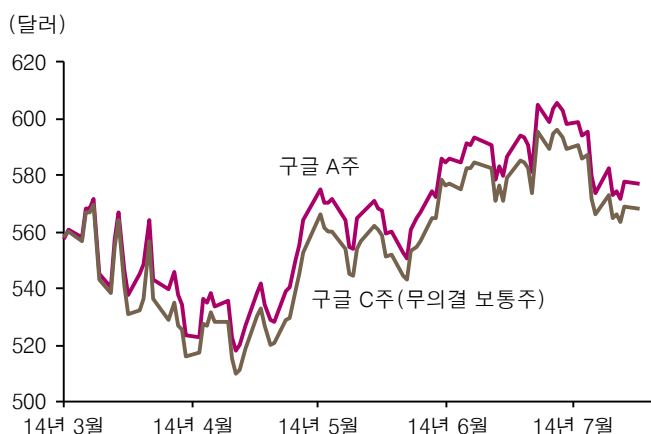
우선주, 보통주 대비 Par Value 시대의 도래 가능성 주목

우선주 강세의 이론적 한계는 보통주 주가수준으로 제한된다. 의결권 가치가 완전히 0으로 수렴할 수 없는 한, 우선주 가치는 보통주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유동성(거래량 및 거래 편의성) 측면에서 국내증시 대부분의 우선주가 보통주 대비 열위에 있다는 점 역시 우선주의 또 다른 한계를 설명한다.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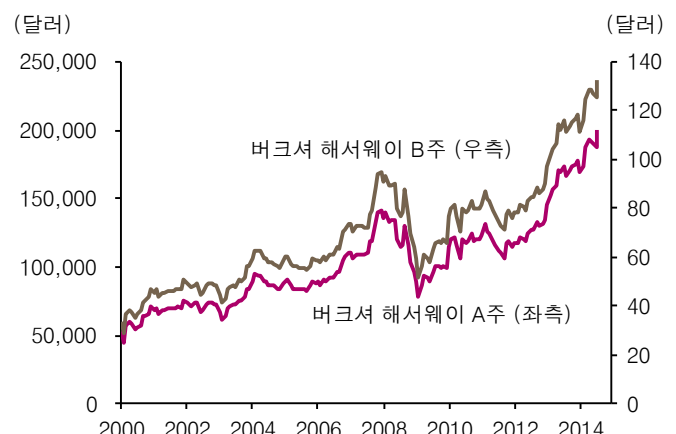
그러나 의결권 가치가 일반 보통주(A주) 주가의 1% 수준에 불과한 구글이나, 의결권이 유동성 프리미엄을 넘어서지 못하는 버크셔 해서웨이 사례는 한국 우선주의 보통주 대비 Par Value 수렴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시금석으로 판단한다 (그림 9, 10). 보통주를 넘어설 순 없더라도, Par Value 부근까지의 우선주 주가상승이 결코 불가능한 미래가 아니라는 의미다.

대형주 기준, 여전히 30~40% 수준의 가격 괴리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우선주의 추가상승 가능성은 높다. 간극의 대부분이 유명무실해진 의결권 가치와 다르지 않고, 이는 우선주의 저평가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 잣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통주를 뛰어넘는 우선주 배당 메리트는 보통주의 유동성 프리미엄에 대응하는 우선주 고유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여기에 기업 배당확대와 우량 우선주 공급 증가를 꾀하는 정책변화가 수반되고 추가적인 수급기반의 확대가 가시화될 경우, 우선주 Par Value에 대한 기대는 결코 요원한 목표가 아닐 수 있다. 우선주 강세현상을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으로 판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림 9. 구글 의결권 가치는 A주 주가의 1.4% 수준에 불과 그림 10. 버크셔 해서웨이 의결권 가치 < 유동성 프리미엄



자료: Bloomberg



참고: 버크셔 해서웨이 A주는 B주 의결권의 10,000배. 그러나 주가는 2000년 이후 평균 1,505배 차이에 불과

자료: Bloomberg

우선주의 추가 상승을 기대하며, 현 시점에서 접근 가능한 중대형 유망 우선주를 다각도의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 1) 국내증시 상장 우선주 가운데, 보통주 및 종류주식 포함 시가총액 5천억원 이상의 중대형 종목으로 한정했다. 외국인 및 기관수급 변화가 중요한 동력이기 때문이다.
- 2) 일 평균 거래대금 1억원 이상 종목으로 제한했다. 유동성 리스크를 피하기 위함이다.
- 3) 보통주 주가대비 우선주 가격 괴리율이 큰 종목에 초점을 맞췄다. 가격 괴리는 수급변화를 유발하는 핵심 트리거 요인이다.
- 4) 기업 펀더멘탈의 추가적 개선 가능성과 함께, 배당수익률의 제고 여부에 주목했다. 최근 우선주 러쉬를 주도했던 종목군의 공통된 특징은 기업 본질가치 및 배당 여건의 개선 기대가 컸던 종목들이었다.

표 1. 중대형 유망 우선주 5選

종목명	시가총액 (십억원)	보통주가 (원)	우선주가 (원)	괴리율 (%)	우선주 배당수익률(%)	120일 평균 거래대금(억원)
아모레퍼시픽우	12,590	1,980,000	962,000	51.7	1.56	15.2
삼성물산우	11,534	72,300	51,600	27.9	2.00	13.1
CJ우	4,779	157,500	89,700	42.5	2.46	9.2
넥센타이어1우B	1,514	15,200	7,400	51.2	1.74	2.3
SK케미칼우	1,394	62,500	32,450	48.8	2.76	8.3

자료: Dataguide

이남룡

nr.lee@samsung.com

02 2020 7035

TOP 10

삼성 TOP 10 연간 수익률 (2014. 1. 2 ~ 8. 12)	삼성 추천 포트폴리오	KOSPI	초과 수익률
	+10.63	+1.50	+9.13

종목	주가 (원)	투자포인트	편입일	수익률
SK텔레콤 (017670)	256,500	- 가입자당 매출액(ARPU) 증가세 및 자회사(SK하이닉스) 실적 호조 - 3.5% 수준의 높은 배당수익률과 추가적인 주주환원 정책 기대	8/6	(-4.8%)
LG디스플레이 (034220)	33,250	- 애플 아이폰6 · 아이패드 등 대면적 신제품 출시에 따른 수익성 개선 - UHD TV 시장 성장 및 제한적 공급 증가로 안정적인 패널 가격 지속	8/6	(-2.2%)
삼성물산 (000830)	72,300	- 3분기 대형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공정진행으로 실적개선세 빨라질 전망 - 삼성전자(지분율 4.1%) · 삼성SDS(17.1%) 등 시가총액 규모 지분보유	8/6	(+1.0%)
아모레퍼시픽 (090430)	1,980,000	- 중국인 관광객의 구조적인 증가세로 면세채널 화장품 매출 고성장세 - 높은 브랜드 인지도 확보로 라네즈 · 설화수 등 중국 화장품 매출 호조	8/6	(+11.0%)
현대글로비스* (086280)	290,500	- 현대차 그룹의 해외공장 생산량 확대에 따른 물류 매출액 성장 지속 - 대규모 자금확보로 향후 적극적인 신사업 투자를 통해 성장동력 확보	8/6	(+6.4%)
한라비스테온공조 (018880)	50,700	- M&A를 통해 기술력 높은 엔진 연비 분야 진출하여 성장동력 확보 - 테슬라와 BMW 납품으로 전기차용 공조 시장을 선점하며 고성장 지속	8/6	(-0.4%)
CJ* (001040)	157,500	- CJ제일제당, CJ프레시웨이 등 상장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 본격화 - CJ푸드빌과 CJ올리브영의 중국 진출 본격화에 따른 이익 성장 기대	8/6	(+3.6%)
대상* (001680)	48,800	- 옥수수 등 원재료 투입단가 하락에 따른 소재 부문 수익성 개선 본격화 - 식품 부문 경쟁완화 및 비용절감에 따른 마진 상승 기조 지속	8/6	(-1.2%)
고려아연 (010130)	441,000	- 대규모 생산능력 확대로 2016년 영업이익 2013년 대비 2배 증가 전망 - 구조적 수요 증가로 아연과 연의 가격 상승세 지속될 전망	7/1	(+11.1%)
NAVER (035420)	771,000	- 게임 · 광고사업 등으로 5년내 전체 매출 50%이상이 라인에서 발생 - 경쟁사 위챗 약 40~50조원 평가 감안시 11조원 수준 라인가치 저평가	1/2	(+5.2%)

참고: *당사 비커버리지 종목 / 계열사: 삼성물산

Top 10 & 유니버스

	종목명	시가총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P/E (배)	P/B (배)	수익률 (%) 1개월
			2013	2014(E)	전년대비 (%)			
1	NAVER	25,414	524	817	55.8	35.2	7.7	(2.8)
2	SK텔레콤	20,711	2,011	1,967	(2.2)	11.0	1.2	5.3
3	아모레퍼시픽	12,590	370	459	24.2	35.6	4.3	15.7
4	LG디스플레이	11,897	1,163	1,114	(4.2)	13.1	1.0	3.3
5	삼성물산	11,534	433	642	48.3	20.2	1.0	2.3
6	현대글로비스*	10,894	637	666	4.6	17.8	3.3	4.9
7	고려아연	8,322	599	654	9.2	14.7	1.6	3.0
8	한라비스테온공조	5,413	364	414	14.0	15.1	2.9	1.8
9	CJ	4,779	786	1,128	8.0	17.9	1.3	3.3
10	대상	1,721	156	171	9.7	14.4	2.0	(6.3)
11	POSCO	28,379	2,996	3,416	14.0	12.9	0.6	10.5
12	코웨이	6,748	339	387	14.2	22.4	5.4	(5.4)
13	호텔신라	4,605	87	136	57.2	32.1	5.3	13.7
14	대우증권	3,818	(35)	199	흑전	25.5	0.9	23.2
15	한전KPS	3,524	184	188	2.3	20.4	4.7	7.4
16	영원무역*	2,023	161	185	14.8	14.3	1.9	(3.8)
17	LG하우시스	1,777	115	163	42.4	14.6	2.0	(2.6)
18	넥센타이어	1,514	177	199	12.2	10.4	1.5	(1.0)
19	SK케미칼*	1,394	194	209	7.8	21.6	1.0	(6.3)
20	삼립식품*	863	36	48	33.7	23.0	3.4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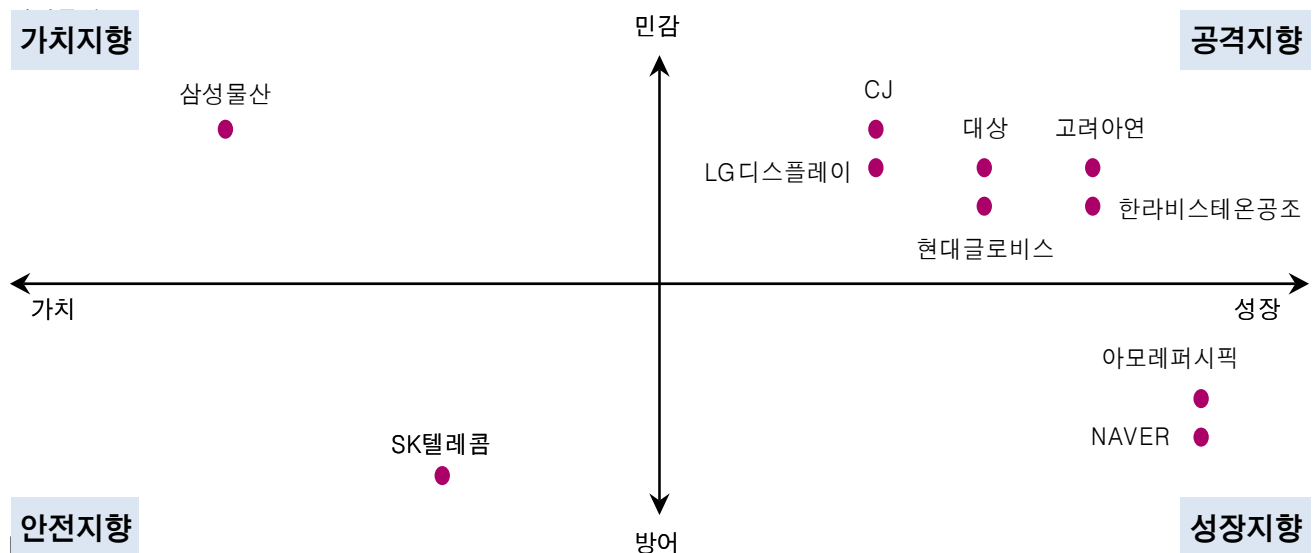
참고: * 당사 비커버리지 종목 / 밸류에이션 지표는 12개월 선행 기준 / 계열사 - 삼성물산, 호텔신라 /

1% 이상 지분 보유 - 호텔신라 / 상기 종목은 시가총액순으로 나열

* 음영 처리된 10개 종목은 현재 삼성 Top 10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종목입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투자 유망 종목으로 관리하는 유니버스입니다.

TOP 10 스타일별 분류 및 트레이딩 밴드

종목	가치	성장	모멘텀	민감주	방어주	금리민감	환율민감
SK텔레콤	○		○		○	○	
LG디스플레이		○	○	○			○
삼성물산	○		○	○		○	
아모레퍼시픽		○	○		○		○
현대글로벌비스		○		○			○
한라비스테온공조		○	○	○			○
CJ		○		○			○
대상		○	○	○			○
고려아연		○	○	○			○
NAVER		○	○		○		○



삼성 TOP 10 포트폴리오 편입 종목을 가치/성장/모멘텀, 민감주/방어주, 금리민감/환율민감 등 유형별로 분류함으로써 투자자별 성향에 맞는 종목 선택을 위한 지표를 제공합니다.

테크니컬 트레이딩 밴드는 차트 분석상 단기적인 매매를 위한 가격대로서 절대적인 밴드는 아닙니다. 단기 수급 동향 및 돌발변수에 따라 수시로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활용하길 권고합니다.

테크니컬 트레이딩 밴드

종목	트레이딩 밴드	근거
SK텔레콤	238,000 ~ 290,000	- 6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238,000원을 중기 지지선으로 설정 - 20일선 이격도 115% 구간인 290,000원선이 단기 트레이딩 목표
LG디스플레이	31,000 ~ 38,000	- 6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31,000원선을 중기 지지선으로 설정 - 20일선 이격도 115% 구간인 38,000원선이 단기 트레이딩 목표
삼성물산	68,000 ~ 80,000	- 12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68,000원선을 중기 지지선으로 설정 - 20일선 이격도 110% 구간인 80,000원을 단기 트레이딩 목표
아모레퍼시픽	1,622,000 ~ 1,980,000	- 4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1,622,000원선을 중기 지지선으로 설정 - 20일선 이격도 115% 구간인 1,980,000원선이 단기 트레이딩 목표
현대글로비스	255,000 ~ 310,000	- 중기 박스권 하단 부근인 255,000원선을 중기 지지선으로 설정 - 20일선 이격도 115% 구간인 310,000원을 단기 트레이딩 목표
한라비스테온공조	48,000 ~ 56,000	- 6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48,000원선을 중기 지지선으로 설정 - 20일선 이격도 115% 구간인 58,000원을 단기 트레이딩 목표
CJ	138,000 ~ 172,000	- 12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138,000원선을 중기 지지선으로 설정 - 20일선 이격도 115% 구간인 172,000원을 단기 트레이딩 목표
대상	44,500 ~ 57,800	- 12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44,500원선을 중기 지지선으로 설정 - 20일선 이격도 115% 구간인 57,800원선이 단기 트레이딩 목표
고려아연	375,000 ~ 490,000	- 2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375,000원선을 중기 지지선으로 설정 - 20일선 이격도 120% 구간인 490,000원선이 단기 트레이딩 목표
NAVER	740,000 ~ 850,000	- 장기이평선 및 6개월 매물대 구간인 70만원 초중반이 단기 하단 - 연중 고점 라인이자, 20일선 이격도 110% 구간인 90만원 단기 상단

홍승표

seoungpyo.hong@samsung.com

02 2020 7038

모멘텀 플레이 유망주

종목	투자 포인트	추천일(수익률)
서부T&D* (006730)	- 용산호텔 착공 돌입으로 인허가와 사업진행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 정부의 부동산 부양 정책으로 대표 자산주인 동사의 수혜 기대 - 중국 인바운드 관광객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로 동사의 호텔 비즈니스 가치 급증 전망	8/4 (+5.6%)
대교* (019680)	- 국내 대표 고배당주로 시가배당을 3% 전후의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 기대 - 4년간의 학습지 역성장 사이클 마감으로 이익 성장 기대감 부각 - 연간 900억원 수준의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확대 기대	8/1 (+0.3%)
KT유통* (043610)	- 모회사 KT와의 연결 상품 마케팅으로 음원 시장내 점유율이 급성장 할 전망 - 정부의 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평균 10%이상 안정적인 음원 가격 인상 기대 -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90억 수준으로 턴어라운드 모멘텀이 부각될 전망	7/28 (+0.2%)
아이컴포넌트* (059100)	- 독보적인 코팅기술을 바탕으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대응 가능한 베이스 필름 양산 - 하반기 애플의 아이워치를 필두로 한 플렉서블 채택 기기 출시로 동사의 기술력 부각 -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80억 수준으로 웨어러블 기기 보급에 의한 급성장 기대	7/7 (+16.3%)
라이온캠텍* (171120)	- 건축 내외장재용 인조대리석 국내 3위, 플라스틱 첨가제인 합성왁스 국내 1위 업체 - 주택시장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와 함께 인조대리석 공장의 생산능력 2배로 증설 완료 - 화재 복구 완료 및 고객사인 한샘의 고성장에 따라 하반기 빠른 이익 증가를 예상	7/2 (+10.0%)
SK케미칼* (006120)	- 고수익성의 PETG 증설, 발전용 바이오중유 시험사업으로 화학 부문 실적 개선 본격화 - 인플루엔자 백신(임상 3상 종료), 수두 및 폐렴 백신(임상 3상 중) 등 신약 상용화 임박 - 글로벌 상위제약사와 계약한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 혈우명 치료제 등 파이프라인 부각	6/20 (+0.8%)
동서* (026960)	- 국내 커피믹스 분야 1위 기업으로 맥심과 카누로 대표되는 파워브랜드 소유 - 매년 1,600억원 전후의 안정적인 순이익을 바탕으로 3%중반대의 시가배당을 유지 - 올해 예상순이익은 1,400억원 수준으로 PER 11.5배 수준의 밸류에이션 메리트 보유	6/3 (+22.7%)

참고: * 당사 비커버리지 종목

주식전략팀 해외주식

e.trading@samsung.com

02 20207306

글로벌 Best 11

글로벌 Best 11 누적 수익률 (2014. 1. 2. ~ 2014. 8. 11.)	글로벌 Best 11	MSCI World & China	초과 수익률
	-2.30%	+1.32%	-3.62%pt

종목 (티커)	시장	주가	투자포인트	편입일	수익률
NEW P&G (PG)	미국	USD 81.48	- 매출부진 브랜드를 대거 정리하고, 세제, 기저귀, 화장품 등 주력제품에 집중 - 구조조정 등을 통한 비용절감으로 수익성 개선 기대	8/12	(신규)
SPDR 골드 (GLD)	미국	USD 125.96	- 실물 금을 보유하는 글로벌 최대 금 투자 ETF - 우크라이나 및 이라크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금 가격 강세 전망	8/8	(-0.2%)
소셜미디어 ETF (SOCL)	미국	USD 20.17	- 텐센트홀딩스, 페이스북, 링크드인 등 글로벌 소셜 미디어 업체에 투자 - 글로벌 SNS 업체 2분기 실적 호조 및 수익 모멘텀 지속 전망	8/8	(+3.5%)
텐센트홀딩스 (700)	홍콩	HKD 132.30	- 중국 최대의 모바일 메신저 보유 및 온라인 게임 시장점유율 1위 기록 - 전자상거래 사업, 금융업 진출로 매출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	8/4	(+3.2%)
뱅크 오브 아마존 (VWO)	미국	USD 44.41	- 새 정부가 들어선 인도와 올해 대선을 앞둔 브라질의 경제 개혁 기대 - 신흥국 주식 시장에 유입된 글로벌 펀드 자금 2년 최고치 돌파	8/4	(+1.0%)
중국중철 (390)	홍콩	HKD 4.34	- 아시아 최대 종합형 건설 그룹사로 막대한 자금력과 수주 능력 보유 - 철도부가 발표한 12.5계획과 철도 투자 자금조달 체제 개혁의 수혜주	7/11	(+7.2%)
S&P EM 아시아 (GMF)	미국	USD 86.95	-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시장친화적 통화정책으로 위험자산 수요 증가 - 고위험 고수익 추구 투자자에게 적합한 아시아 신흥국 투자 ETF	6/27	(+5.5%)
iShares MSCI 중국 (2801)	홍콩	HKD 21.70	- 위안화 약세에 따른 수출 호조 및 인민은행의 탄력적 유동성 관리 기대 - 중국 6월 HSBC 제조업 PMI 속보치 51.1로 경기 확장 국면 진입	6/24	(+9.7%)
몬산토 (MON)	미국	USD 115.42	- 4년째 시장점유율 및 제품 Mix의 개선이 동반되는 성장에 예상 - 경쟁사 대비 우월한 Bio기술은 동사의 장기 성장 기반	5/26	(-3.8%)
미국 산업재 ETF (XLI)	미국	USD 52.38	- GE, 보잉, 유나이티드테크놀로지, 유니온퍼시픽 등 대표 산업재 보유 -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설비투자 증대로 산업재 섹터 강세 지속 전망	5/9	(-1.1%)
구글 (GOOGL)	미국	USD 577.25	- 적자 사업부인 모토로라 매각을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 - 로봇업체 인수합병 및 팩스콘과의 제휴를 통한 로봇사업 본격 진출	1/2	(+2.9%)

참고: 편입비중은 균등하게 배분. 벤치마크 산출에 대한 시차 관계상 증가는 전일종가로 기록

글로벌 Best 11 포트폴리오에서 엑슨모빌을 편입 제외하고, P&G를 신규 편입합니다. 엑슨모빌은 7월 31일 실적발표에서 실적 개선세를 보였으나, 생산이 전년동기 대비 오히려 감소했다는 점에서 모멘텀이 둔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후 수익 모멘텀 회복시 재편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신규 편입한 P&G는 최근 매출부진 브랜드 100여개를 매각 및 인력 구조조정 등 비즈니스 재편으로 경영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이고, 미국 경기회복으로 화장품 등 소비재 지출이 증가하는 데 따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ETF 5

종목 (티커)	주가	펀드 개요 및 투자 포인트	편입일	수익률
SPDR Gold Trust ETF (GLD)	USD 125.96	- 금 실물을 보유하는 세계 최대의 금 투자 ETF - 거래대금 및 유동성 측면에서 전세계 원자재 투자 ETF 중 압도적 1위 - 이라크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되며 금 가격 강세 전망	8/8	(-0.2%)
Global X Social Media ETF (SOCL)	USD 20.17	- 텐센트홀딩스, 페이스북, 링크드인, 구글 등 글로벌 소셜 미디어 업체에 투자하는 ETF - 최근 SNS 업체 주가 고평가 논란 있었으나, 2분기 실적 호조를 통해 투자자들의 밸류에이션 우려 완화	8/8	(+3.5%)
iShares MSCI China (2801)	HKD 21.70	- MSCI China 지수를 벤치마크로 운용되는 ETF로 홍콩에 상장된 종목에 투자 - 주요 보유종목은 텐센트홀딩스, 차이나모바일, 중국건설은행, 페트로차이나 등 - 위안화 약세에 따른 수출 경기 호조 및 인민은행의 탄력적 유동성 관리 기대 - 중국 6월 HSBC 제조업 PMI 속보치 51.1로 경기 확장 국면 진입	6/24	(+9.7%)
Industrial Select Sector SPDR (XLI)	USD 52.38	- 미국 내 산업재 섹터에 투자하는 ETF - 주요 보유종목은 GE, 보잉,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3M, 유니온퍼시픽 등 -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설비투자 증대로 산업재 섹터가 2014년에도 강세가 지속될 전망	1/3	(+1.6%)
PowerShares QQQ NASDAQ 100 (QQQ)	USD 95.46	- 나스닥 100 지수를 벤치마크로 운용되는 ETF - 주요 보유종목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닷컴, 시스코시스템즈 등으로 IT 종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대다수 글로벌 IB는 2014년 미국시장에서 매수 유망한 섹터로 IT 섹터 추천	1/3	(+9.4%)

참고: 티커 2801은 홍콩시장에 상장되어 거래. 티커 XLI, QQQ, SOCL, GLD는 미국시장에 상장되어 거래

주식전략팀 해외주식

e.trading@sams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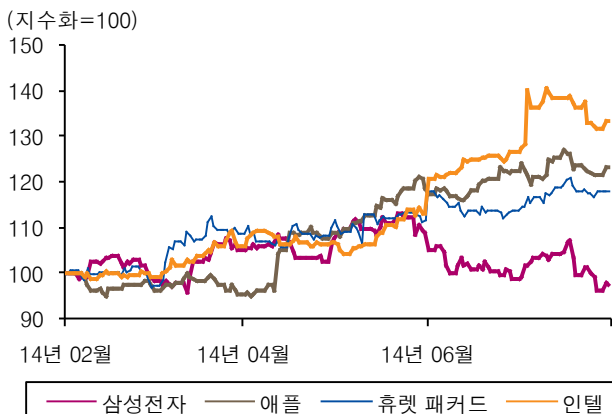
02 2020 7306

글로벌 Peer 분석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에 지지부진한 흐름

- IT 하드웨어 섹터에서 삼성전자가 약세를 지속한 가운데 애플, 인텔 등이 하락 후 반등. IT 소프트웨어 섹터는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가 대체로 부진한 흐름을 보인 반면, 텐센트 홀딩스는 강세
- 자동차 섹터는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통신 섹터에서 강세를 지속하던 SK텔레콤은 신고가 이후 비교적 큰 폭 하락
- 보험 섹터의 AIA가 신고가를 경신한 반면, 삼성생명은 약세. 유통섹터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테스코는 또다시 신저가 기록

IT (하드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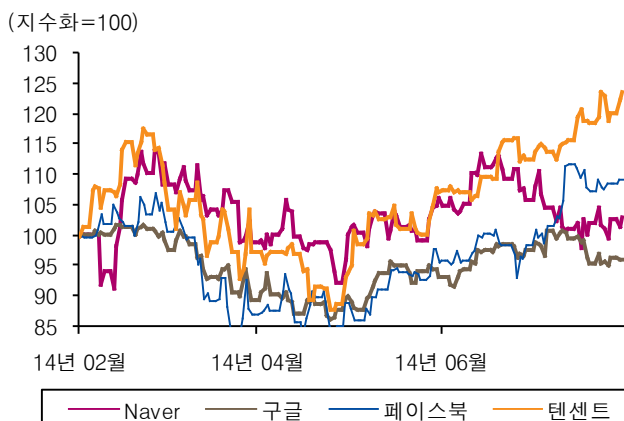


	P/B (배)	P/E (배)	ROE (%)	EPS 증가율 (%)	1개월 수익률 (%)
삼성전자	1.2	7.5	16.8	(15.1)	(1.4)
애플	4.8	15.2	31.5	11.5	0.8
휴렛 팩커드	2.3	9.5	23.6	4.4	3.6
인텔	2.8	14.9	19.1	13.4	5.7

참고: 밸류에이션 및 EPS증가율은 2014년 추정치 기준

자료: Bloomberg

IT (소프트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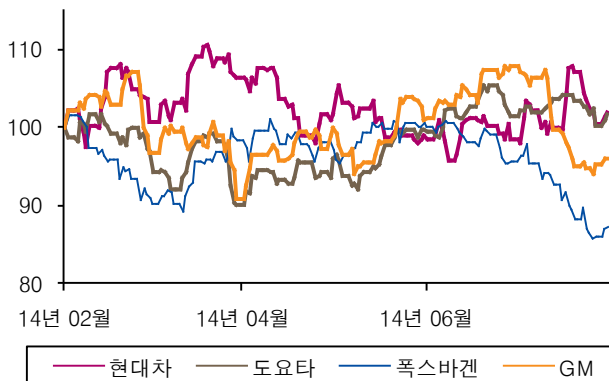
	P/B (배)	P/E (배)	ROE (%)	EPS 증가율 (%)	1개월 수익률 (%)
네이버	12.4	48.0	30.2	86.4	(2.8)
구글	3.6	21.8	17.3	20.4	(1.6)
페이스북	10.1	45.5	21.8	83.5	10.7
텐센트	12.9	42.2	33.0	31.1	9.7

참고: 밸류에이션 및 EPS증가율은 2014년 추정치 기준

자료: Bloomberg

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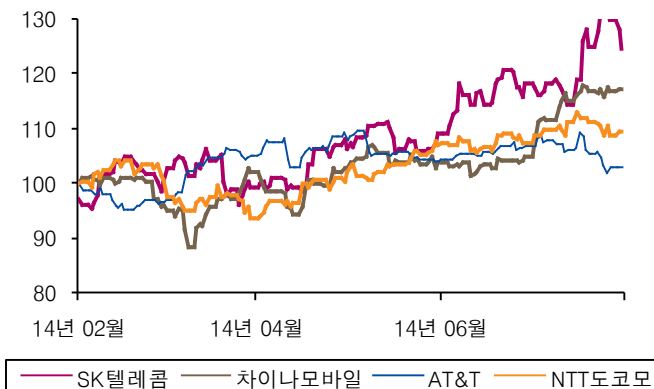
(지수화=100)



자료: Bloomberg

통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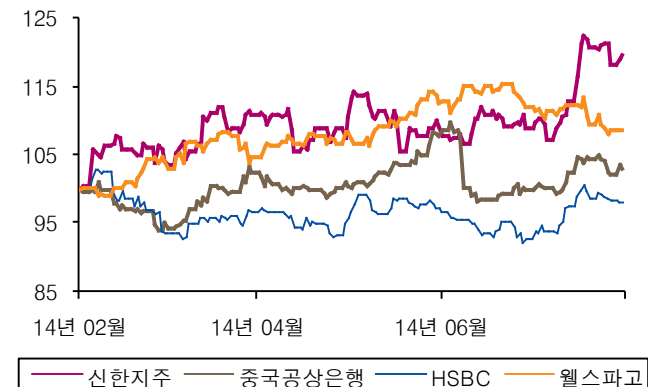
(지수화=100)



자료: Bloomberg

은행

(지수화=100)



자료: Bloomberg

	P/B (배)	P/E (배)	ROE (%)	EPS 증가율 (%)	1개월 수익률 (%)
현대자동차	1.0	6.8	15.0	(11.9)	3.6
토요타자동차	1.2	9.6	12.9	8.4	0.2
폭스바겐	0.8	7.9	11.3	14.7	(8.7)
제너럴 모터스	1.3	12.1	12.3	(12.4)	(10.9)

참고: 밸류에이션 및 EPS증가율은 2014년 추정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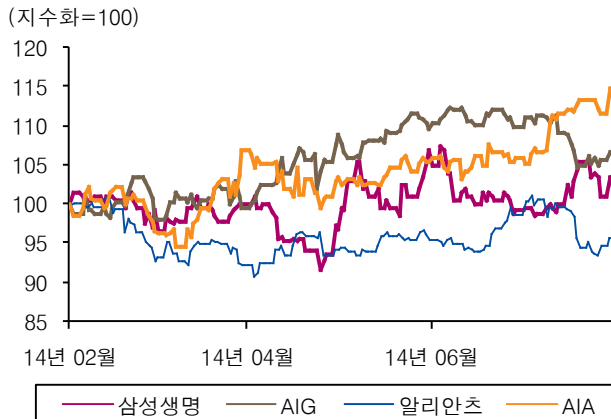
	P/B (배)	P/E (배)	ROE (%)	EPS 증가율 (%)	1개월 수익률 (%)
SK텔레콤	1.4	11.2	12.5	12.4	5.3
차이나모바일	1.6	13.0	12.8	(13.3)	11.7
AT&T	1.9	13.2	14.5	4.2	(3.6)
NTT 도코모	1.3	14.6	8.5	9.4	1.9

참고: 밸류에이션 및 EPS증가율은 2014년 추정치 기준

	P/B (배)	P/E (배)	ROE (%)	EPS 증가율 (%)	1개월 수익률 (%)
신한금융지주	0.8	11.1	7.7	13.1	9.6
중국 공상은행	0.9	4.4	18.8	6.2	2.9
HSBC 홀딩스	1.1	11.4	9.5	2.3	5.7
웰스파고	1.6	12.2	13.4	5.3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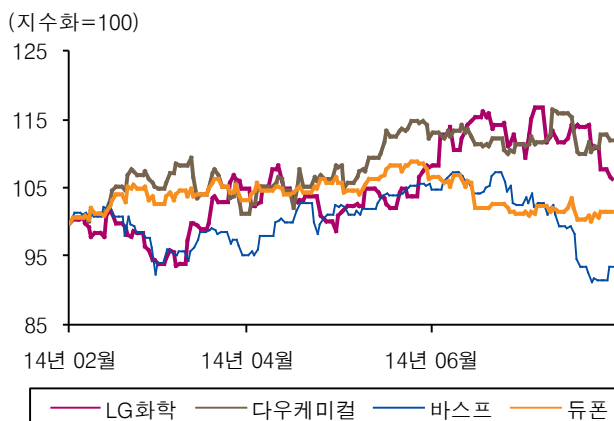
참고: 밸류에이션 및 EPS증가율은 2014년 추정치 기준

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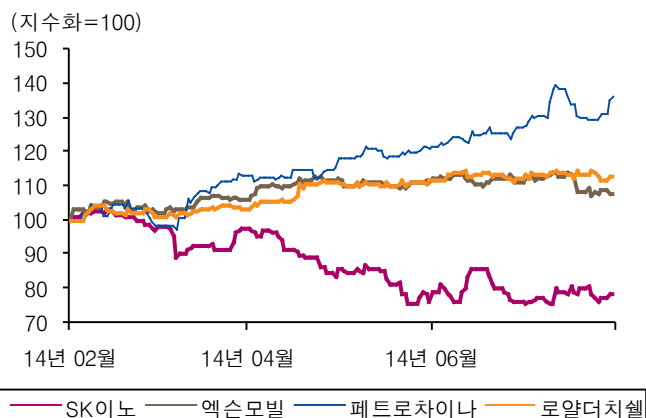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화학



자료: Bloomberg

정유



자료: Bloomberg

	P/B (배)	P/E (배)	ROE (%)	EPS 증가율 (%)	1개월 수익률 (%)
삼성생명	1.0	18.0	5.4	12.7	3.2
AIG	0.7	11.5	6.9	0.8	(3.0)
알리안츠	1.0	9.0	11.8	4.5	(2.9)
AIA	2.3	20.8	12.5	15.6	7.8

참고: 밸류에이션 및 EPS증가율은 2014년 추정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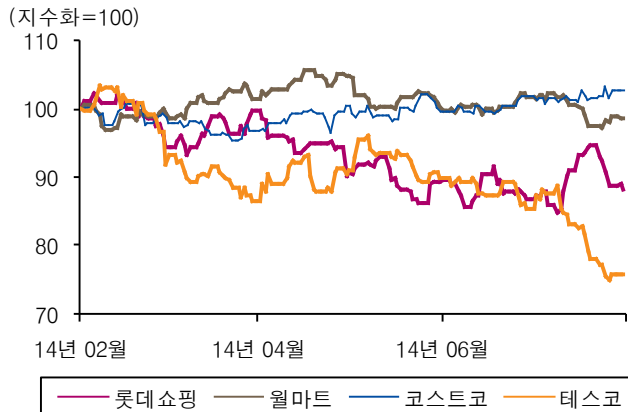
	P/B (배)	P/E (배)	ROE (%)	EPS 증가율 (%)	1개월 수익률 (%)
LG화학	1.6	15.4	10.2	(8.1)	(4.6)
다우 케미컬	2.3	17.6	14.4	18.6	0.4
바스프	2.4	13.2	18.7	7.7	(8.8)
듀폰	3.7	16.1	22.3	3.8	0.2

참고: 밸류에이션 및 EPS증가율은 2014년 추정치 기준

	P/B (배)	P/E (배)	ROE (%)	EPS 증가율 (%)	1개월 수익률 (%)
SK이노베이션	0.6	17.6	3.7	(24.7)	3.6
엑슨 모빌	2.3	12.7	18.6	5.2	(3.0)
페트로차이나	1.2	11.4	11.0	29.9	7.4
로알더치셀	1.3	10.6	12.7	22.9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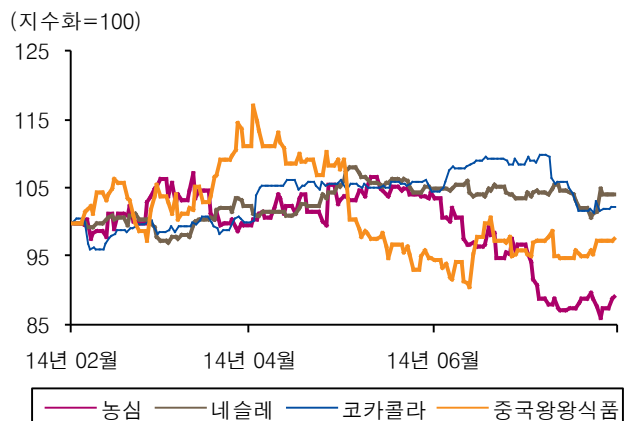
참고: 밸류에이션 및 EPS증가율은 2014년 추정치 기준

유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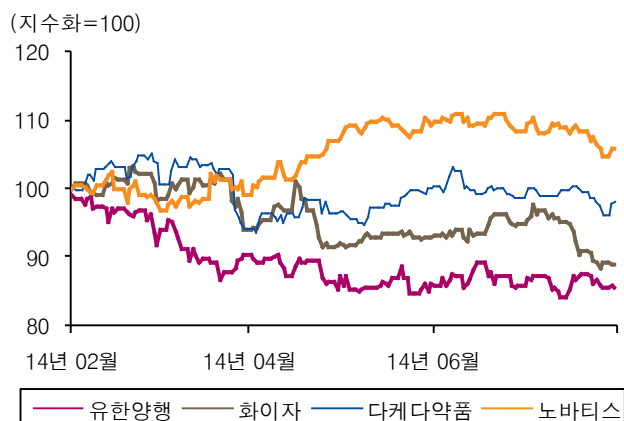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음식료



자료: Bloomberg

제약



자료: Bloomberg

	P/B (배)	P/E (배)	ROE (%)	EPS 증가율 (%)	1개월 수익률 (%)
롯데쇼핑	0.6	11.1	5.1	(5.2)	1.9
월마트	2.9	14.4	20.7	1.1	(3.2)
코스트코	4.3	26.0	17.4	2.2	1.0
테스코	1.3	10.1	12.9	(23.8)	(11.4)

참고: 밸류에이션 및 EPS증가율은 2014년 추정치 기준

	P/B (배)	P/E (배)	ROE (%)	EPS 증가율 (%)	1개월 수익률 (%)
농심	1.0	16.3	6.5	5.7	(7.9)
네슬레	3.2	19.9	16.6	1.3	0.4
코카콜라	5.1	19.1	27.4	(0.2)	(5.7)
중국왕왕식품	8.3	24.7	36.4	9.6	1.7

참고: 밸류에이션 및 EPS증가율은 2014년 추정치 기준

	P/B (배)	P/E (배)	ROE (%)	EPS 증가율 (%)	1개월 수익률 (%)
유한양행	1.5	20.7	7.7	22.7	(0.3)
화이자	2.4	12.6	19.6	1.2	(6.1)
타케다약품	1.5	25.9	4.0	32.4	(0.6)
노바티스	2.7	16.3	15.3	3.1	(2.4)

참고: 밸류에이션 및 EPS증가율은 2014년 추정치 기준

임은혜
e0124.lim@samsung.com
02 2020 7027

수급 빅매치

기관/외국인 동시 순매수 Top-Pick

기업은행(A024110)



외국인 1일 연속 순매수, 기관 5일 연속 순매수

테스나(A131970)



외국인 1일 연속 순매수, 기관 1일 연속 순매수

기관 순매수 Top-Pick

LG생활건강(A051900)



기관 10일 연속 순매수

다음(A035720)



기관 1일 연속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Top-Pick

한국전력(A015760)



외국인 12일 연속 순매수

성우하이텍(A015750)



외국인 12일 연속 순매수

참고: 상기에서 제시한 종목들은 매수추천 의미가 아닌 뉴스와 수급을 중심으로 시장 특징종목을 나열한 것이며, 시간외대량매매 및 장외지분 변동 시 일부 자료에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주요 매매 종목

유가증권 시장

순매수	(억원)	순위	순매도	(억원)
삼성전자	580	1	SK하이닉스	336
한국전력	164	2	LG생활건강	182
LG전자	163	3	아모레퍼시픽	173
현대차	150	4	삼성전자우	67
KB금융	93	5	NAVER	57
기아차	79	6	GKL	52
엔씨소프트	77	7	POSCO	49
SK	72	8	SK텔레콤	48
LG이노텍	65	9	KT&G	41
고려아연	59	10	KCC	36

코스닥 시장

순매수	(억원)	순위	순매도	(억원)
CJ E&M	72	1	셀트리온	49
GS홈쇼핑	49	2	다음	22
원익IPS	34	3	리홈쿠펜	17
성우하이텍	24	4	CJ오쇼핑	11
블루콤	20	5	하림홀딩스	9
엑세스바이오	17	6	인트론바이오	8
선데이토즈	16	7	NICE평가정보	8
네오위즈게임즈	12	8	서울반도체	8
OCI머티리얼즈	10	9	우리산업	7
인터파크	9	10	사파이어테크놀로지	7

기관 주요 매매 종목

유가증권 시장

순매수	(억원)	순위	순매도	(억원)
NAVER	366	1	삼성전자	725
LG생활건강	286	2	KODEX 레버리지	353
아모레퍼시픽	234	3	LG전자	177
KODEX 인버스	176	4	SK	176
우리투자증권	114	5	엔씨소프트	131
대우증권	92	6	한국전력	105
미래에셋증권	91	7	코웨이	96
SK C&C	90	8	현대차	95
POSCO	64	9	LG이노텍	90
현대위아	57	10	LG화학	64

코스닥 시장

순매수	(억원)	순위	순매도	(억원)
위메이드	23	1	리홈쿠펜	84
CJ E&M	18	2	CJ오쇼핑	38
골프존	15	3	매일유업	34
다음	15	4	GS홈쇼핑	33
테스나	11	5	씨젠	23
와이지엔터테인먼트	11	6	토비스	18
인터파크INT	10	7	게임빌	17
내츄럴엔도텍	9	8	OCI머티리얼즈	14
우리산업	8	9	KH바텍	13
농우바이오	8	10	에스엠	12

참고: 상기 자료는 17:00시 기준 자료로서 시간외대량매매의 발생 및 장외지분 변동 시 일부 자료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료: Koscom

기관/외국인 동시 순매수 주요종목

유가증권 시장

기관기준	(억원)	순위	외국인기준	(억원)
현대위아	57	1	KB금융	93
NICE	47	2	기아차	79
KT	34	3	기업은행	39

코스닥 시장

기관기준	(억원)	순위	외국인기준	(억원)
위메이드	23	1	CJ E&M	72
골프존	15	2	블루콤	20
테스나	11	3	엑세스바이오	17

참고: 상기 자료는 17:00시 기준 자료로서 시간외대량매매의 발생 및 장외지분 변동 시 일부 자료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료: Koscom

임은혜

e0124.lim@samsung.com

02 2020 7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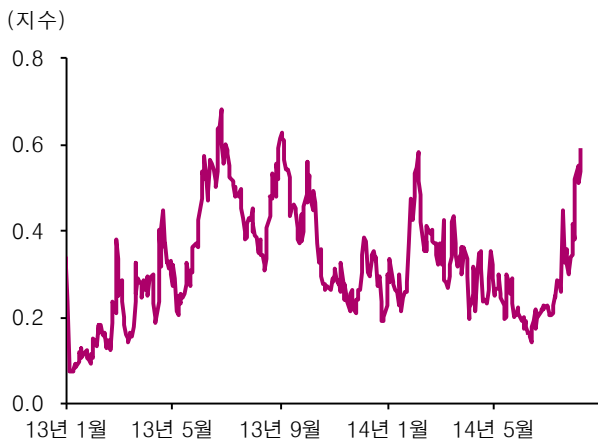
Market Indicators

美 연준 부의장 비둘기파적 발언으로 금 하락

-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에도 금가격은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가는 흐름. 더불어, 전일 미국 FRB 부의장 스탠리 피셔가 글로벌 경제 성장 회복세가 실망적인 수준이라고 밝히며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된 점이 금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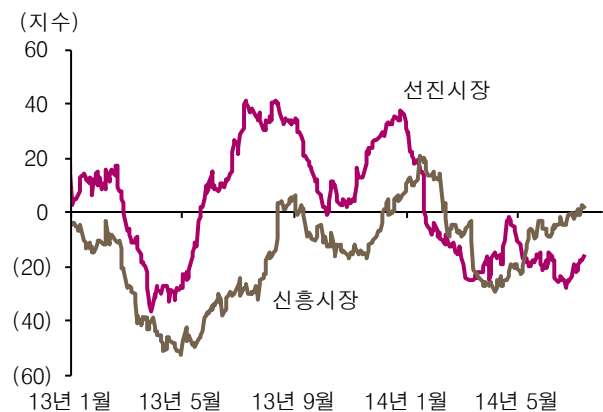
Macro Indicator

시티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자료: Bloomberg

시티 매크로 서프라이즈 인덱스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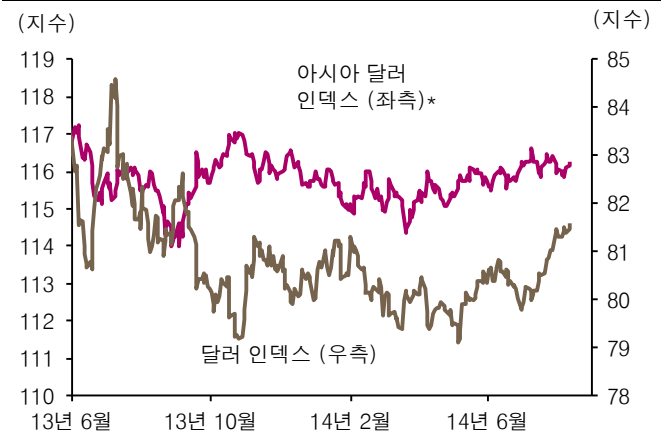
미국/일본 국채 수익률 추이



참조: 10년물 기준

자료: Bloomberg

달러 인덱스와 아시아 달러 인덱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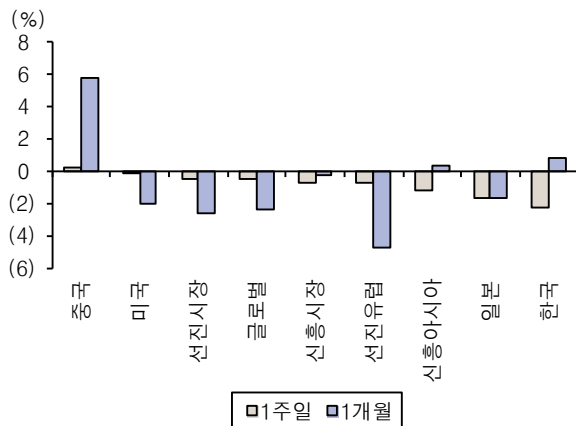


참조: * 미국 달러화에 대한 아시아 10개국 통화 가치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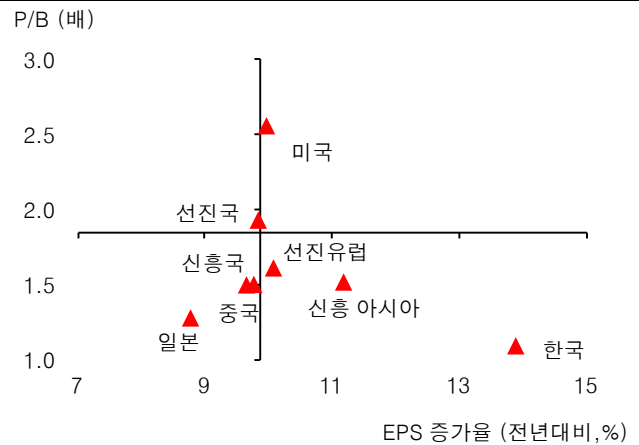
글로벌 증시 동향

MSCI 지역별 증시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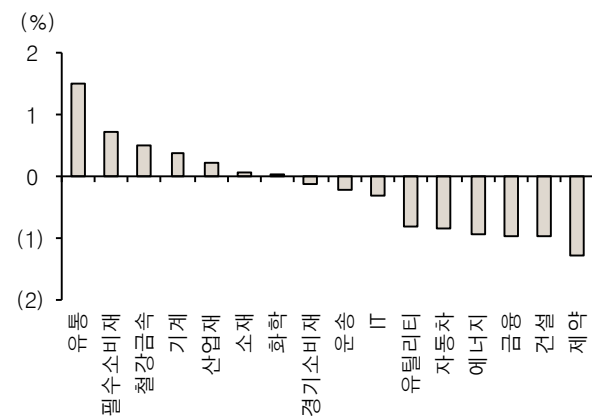
참고: 8월 1일 ~ 8월 8일 기준 자료: Thomson Reuters

MSCI 지역별 12개월 선행 기준 예상 EPS 증가율 및 P/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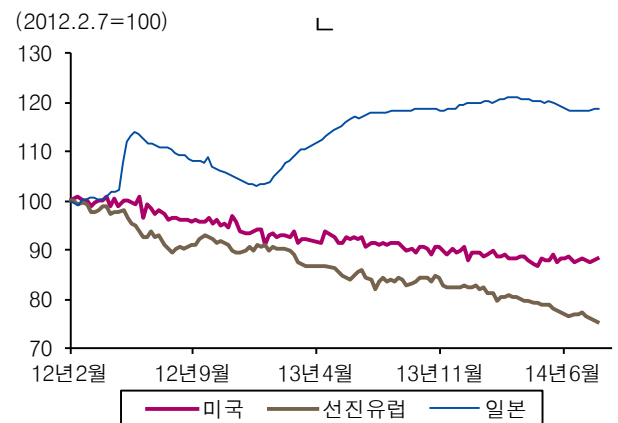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MSCI 선진시장 섹터별 주간 증시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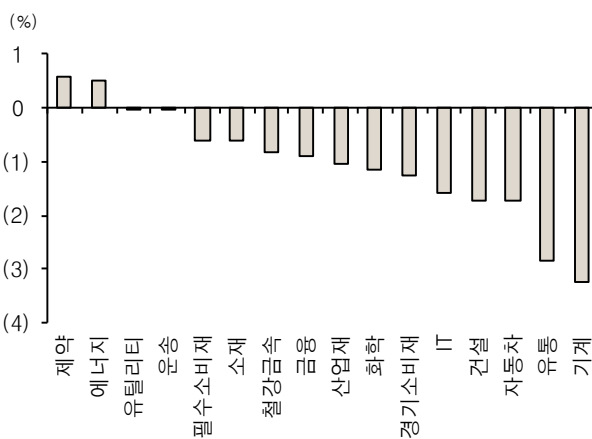
참고: 8월 1일 ~ 8월 8일 기준 자료: Thomson Reuters

MSCI 선진시장 주요 국가별 2014년 예상 EP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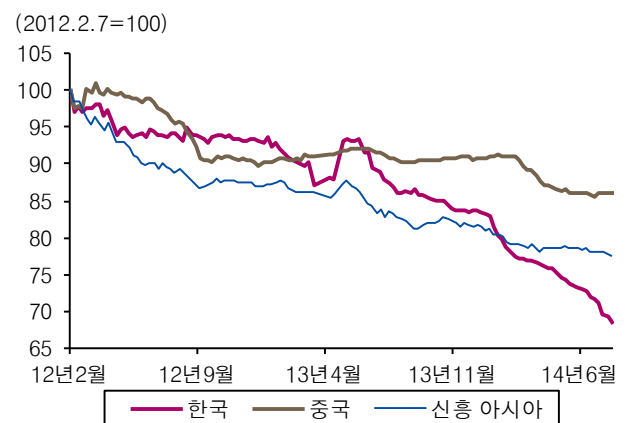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MSCI 신흥시장 섹터별 주간 증시 성과



참고: 8월 1일 ~ 8월 8일 기준 자료: Thomson Reu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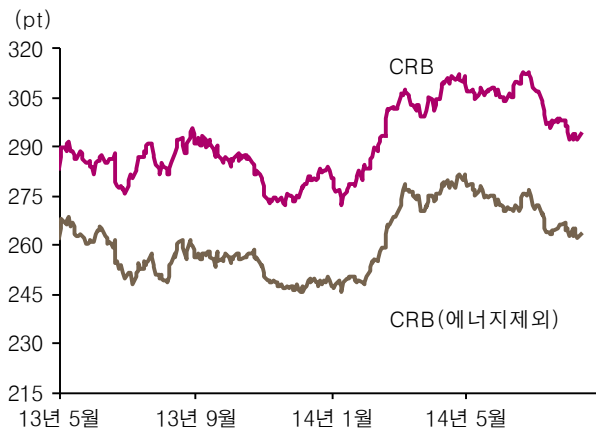
MSCI 신흥시장 주요 국가별 2014년 예상 EPS 추이



자료: Thomson Reu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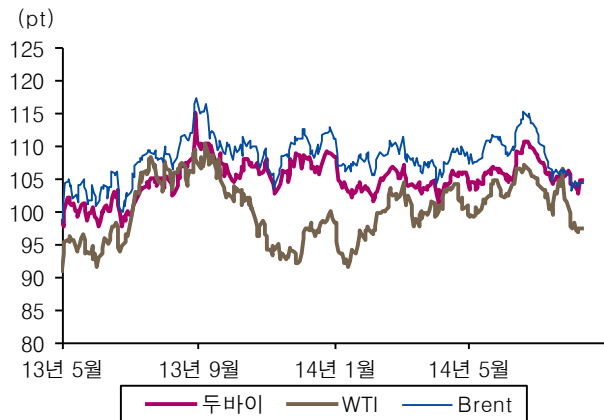
상품 및 산업 Indicators

TR/Jefferies CRB Index



자료: Thomson Reuters, 주: CRB(농산물+에너지+비철금속)

국제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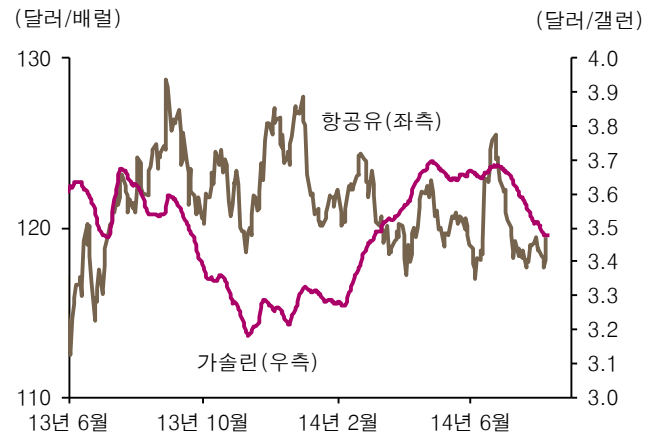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싱가포르 정제마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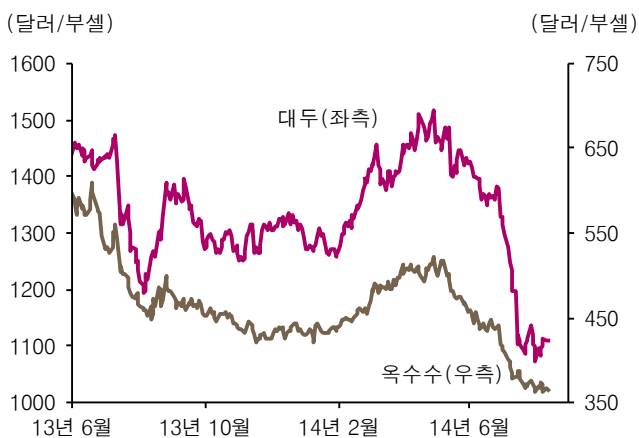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항공유 & 가솔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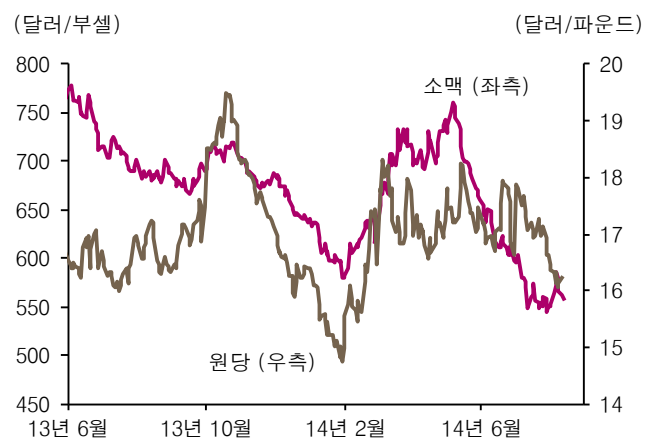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두 & 옥수수



자료: Thomson Reuters

소맥 & 원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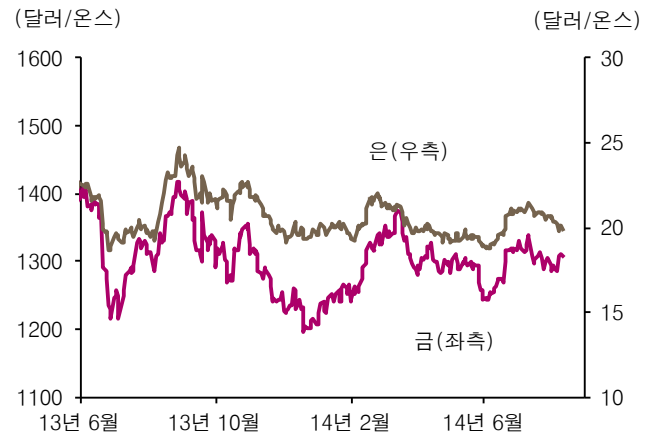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LME(비철금속) 지수



자료: Thomson Reuters

귀금속 가격



자료: Thomson Reuters

비철금속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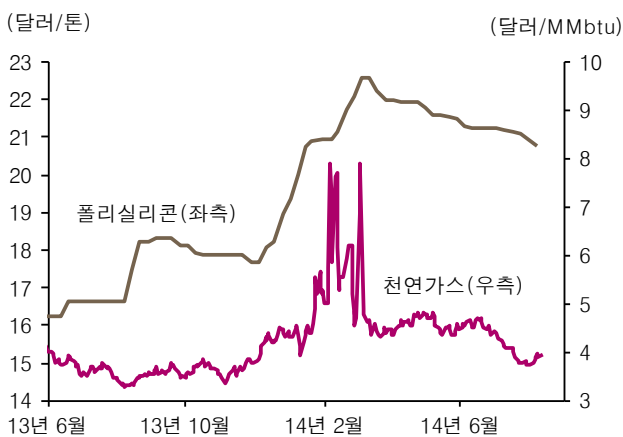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철강 유통가격



자료: Bloomberg

폴리실리콘 & 천연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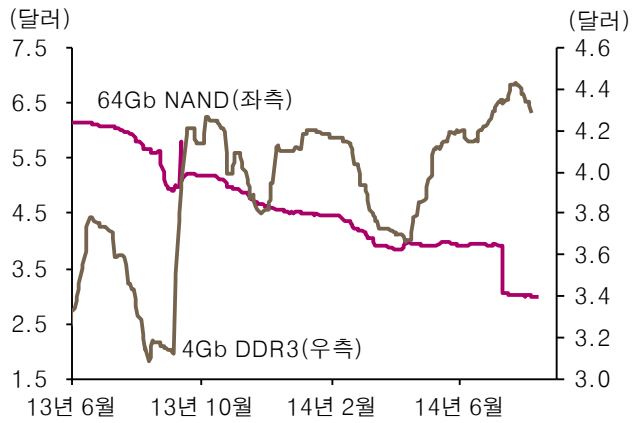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PVinsights

석탄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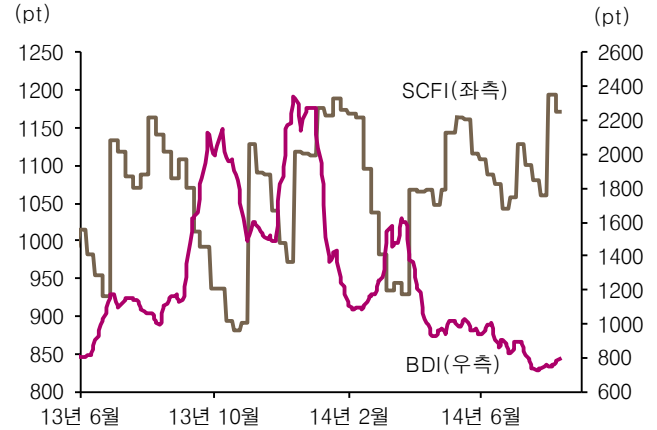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RAM & NAND 현물 가격



자료: DRAmExchange

해상운임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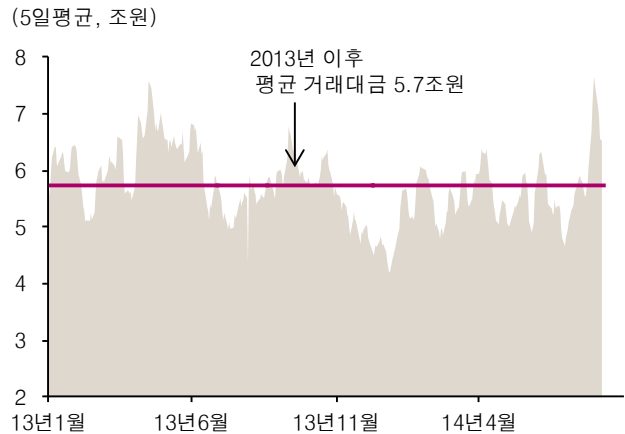
자료: 상하이항운교역소, Thomson Reuters

한국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자료: 한국은행

KOSPI & KOSDAQ 거래대금



자료: KRX

임은혜

e0124.lim@samsung.com

02 2020 7027

증시 캘린더

MON	TUE	WED	THU	FRI
11	12	13	14	15
	(미국) 7월 월간 재정수지(십억달러) (7월 -/E -96.0/P -) (유럽) 8월 ZEW 경제서베이 예상 (8월 -/E -/P 48.1)	(미국) 주간 MBA주택융자신청지수(전주대비) (8월1주 -/E -/P 1.6%) 7월 소매판매(전월대비) (7월 -/E 0.2%/P 0.2%) (한국) 7월 실업률 (7월 -/E 3.5%/P 3.6%) (중국) 7월 고정자산투자(전년대비) (7월 -/E 17.4%/P 17.4%) 7월 소매판매(전년대비) (7월 -/E 12.5%/P 12.4%) 7월 광공업생산(전년대비) (7월 -/E 8.8%/P 8.8%) (유럽) 6월 산업생산(전월대비) (6월 -/E 0.4%/P -1.1%) (일본) 2분기 GDP(잠정, 전년대비) (2분기 -/E 1.6%/P -0.1%)	(미국)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천건) (8월1주 -/E 295/P 289) (한국) 8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8월 -/E 2.25%/P 2.50%) 8월 옵션만기일 (유럽) 7월 소비자물가지수(전월대비) (7월 -/E -0.6%/P 0.1%) 2분기 GDP(전년대비) (2분기 -/E 0.7%/P 0.9%)	(미국) 8월 뉴욕 제조업지수 (8월 -/E 20.00/P 25.60) 7월 생산자물가지수(전월대비) (7월 -/E 0.1%/P 0.4%) 6월 총자본흐름(십억달러) (6월 -/E -/P 19.4) 7월 광공업생산(전월대비) (7월 -/E 0.3%/P 0.2%) 7월 설비가동률 (7월 -/E 79.2%/P 79.1%) 8월 미시간대 기대지수 (8월 -/E 82.5/P 81.8) *증시휴장 - 한국, 인도
18	19	20	21	22
	美 7월 소비자물가지수 7월 주택착공건수 7월 건축허가 韓 7월 생산자물가지수	美 주간 MBA주택융자신청지수 연준 7월 FOMC 의사록 공개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7월 기존주택매매 7월 경기선행지수 中 8월 HSBC제조업 PMI 유 8월 마켓 PMI 8월 소비자기대지수	
25	26	27	28	29
美 7월 신규주택매매 *증시휴장 - 영국	美 7월 내구재 주문 6월 FHFA주택가격지수 6월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美 주간 MBA주택융자신청지수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2분기 GDP 2분기 개인소비 유 7월 M3 통화공급 8월 경기기대지수 韓 7월 경상수지 7월 상품수지	美 7월 개인소득 7월 개인소비지수 유 7월 실업률 8월 소비자물가지수 韓 9월 기업경기실사-제조업 7월 산업생산 7월 광공업생산 *증시휴장 - 인도

자료) Bloomberg

참고) 韓: 한국, 美: 미국, 유: 유로존, 中: 중국, 日: 일본, 독: 독일, 영: 영국 / 현지시간 기준

해외주식 바로 알기

해외주식 매매 프로세스

프로세스	내용
해외주식 약정 등록	• 삼성증권 종합계좌에 해외주식 약정 등록
입금 / 환전	• 원화 입금의 경우 거래국가 통화로 환전 • 환전 가능시간: 09:00 ~ 16:00 (공휴일 불가) ※ 외화 입금시 환전 필요없음 (단, 외화 현금 지점 수납은 불가)
주문 (매수 / 매도)	• 온라인 매매 가능국가: 미국 · 홍콩 · 일본 • 유럽 및 기타국가: 오프라인 주문만 가능
환전 / 출금	• 원화 입금시 원화 출금, 외화 입금시 외화출금 원칙
양도세 신고	• 매도한 해의 다음년도 5월에 자진신고 (ex. 2013년 매도시 2014년 5월에 신고) • 250만원 기본공제를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22% (주민세 포함) 양도소득세 부과

거래국가의 통화로 환전을 한다는 점과 양도소득세 신고를 제외하면 해외주식이 국내 주식과 다른 점은 없다. 삼성증권에서는 환전 가능시간(오전 09:00~오후 4:00)에 전화나 HTS,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쉽고 간단하게 환전 가능하며, 환전 이후 주문 역시 논스탑으로 가능하다.

해당국가의 통화로 직접 입금했을 경우에는 환전 절차가 필요 없이 바로 매매가 가능하다. 다만, 외화입금의 경우 매매가 끝난 이후 출금 역시 외화로 이루어져야 한다. 삼성증권에서는 원화 입금시에는 원화 출금, 외화 입금시에는 외화 출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주식전략팀이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250번지 삼성본관빌딩 14층 주식전략팀 02-2020-8000